

韓國營養學會誌 24(5) : 469~476, 1991  
Korean J Nutrition 24(5) : 469~476, 1991

## 속초시 영유아의 이유실태조사

이정실\* · 김을상

\*동우전문대학 식품영양과 ·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Study on Infant Feeding Practice in Sockcho-City

Lee, Jeong Sill\* · Kim, Eul Sa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ong-u Colleg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aning practice of 170 infants, aged 6 to 20 months, in Sockcho city Kangwon province. Informations on the infant feeding were obtained by interviewing mothers in three different pediatric clinics located in Sockcho. In this survey 40.4% of infants were breast-fed, while 44.1% of them were bottle-fed. Among subjects 75.9% of infants began to be weaned within 6 months. Among those who finished weaning already, 56.7% of infants finished weaning 11 to 13 months. Sixty percent of mothers got the nutritional knowledge on infant feeding by the aid of cook book and child care book. Fruit juice was firstly introduced as infant food. The most favorite food for infants was fruit juices which were followed by soup, and egg pudding. Cereals were used frequently as infant foods while meat & fish, beans and vegetables were lesser used for infants. For the improvement of nutritional states of infants,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mes and development of infant food is needed.

KEY WORDS : weaning practice · breast-fed · bottle-fed · infant feeding.

#### 서 론

영유아기의 영양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sup>1,2)</sup>, 이때의 건강이 성인기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단위 체중당 영양요구량은 어

접수일자 : 1991년 6월 24일  
채택일자 : 1991년 9월 16일

느시기보다도 크므로 영유아기의 적절한 영양법은 다른 연령 때 보다 훨씬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영유아들에게 적절한것이 아니므로 영유아의 영양요구량을 충족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는 발달 특성과 영양요구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식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sup>3)</sup>. 이유란 영유아가 모유나 조제분유로부터 다른 식품원으로 바꾸는 기간을 말하는데 성장과 발달속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

## 영유아의 이유실태

어나고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적어도 4개월이 되어야 이단계에 도달하며 고형식품의 최초공급후 일반적으로 적어도 수개월에 걸쳐서 이유과정이 완료된다<sup>4)</sup>. 영유아기에 이유식을 너무 일찍하면 비만이나 allergy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신체의 성장저하, 빈혈, 영양실조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sup>5)6)</sup>. 그러므로 이유식은 모유나 조제분유만으로는 정상적인 성장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 시작하고, 이유보충식의 종류와 량은 영유아의 신체기능 및 생리발달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인 영유아의 이유실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sup>7~15)</sup> 대부분이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조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아직 조사된적이 없는 해안가 지역 소도시인 속초시에서 영유아들의 이유이전의 수유법종류, 모유의 단유시기, 이유시기, 이유보충식의 종류 및 영유아들의 기호 등을 조사하여 영유아기의 이유실태를 파악하고 타지역의 보고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 조사방법

본 조사는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한 소아과 3곳에서 현재 이유실시중 이거나 이유를 완료한 영유아와 함께 방문한 보호자 170명을 대상으로 1991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20개월까지의 영유아 170명으로 남아가 98명 여아가 72명이었다.

조사방법은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이 직접 대화하면서 영유아의 보호자가 직접 표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원은 속초 동우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을 미리 교육을 시켰다.

본 연구자료는 SAS program<sup>16)</sup>에 의해 통계처리하였다. 이유실시 이전의 수유방법과 수유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유의성은 Chi-square 검정을 이유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은 Duncan test와 Pearson 상관계수<sup>17)</sup>

를 사용하였으며 각요인별 유의자는 5%이하에서 인정하였다.

## 조사 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은 남아 57.5%, 여아 42.3%이었으며 연령은 6개월에서 20개월이었다. 출생시 체중은 남아가  $3.37 \pm 0.33$ , 여아가  $3.20 \pm 0.26$  Kg으로 남여아 간에 유의차는 없으나 남아가 0.13 Kg 더 무거웠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9.4%, 둘째가 35.3%, 세째이하가 5.3%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중졸이 20.6%, 고졸이 58.8%, 대졸이상이 20.6% 이었고 어머니들의 직업관계는 Table 1과 같이 주부가 69.4%로 제일 많았으며 상시근무가 17.1%, 시간제근무 및 부업이 13.5%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상시근무자가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정도는 40만원이하가 5.5%, 40~60만원이 20.6%, 60~80만원이 26.5%, 80~100만원이 25.9% 100만원이상이 23.5%로 대개가 중류층이었다.

### 2. 어머니의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

모유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설문에서 찬성, 반대, 의심의 답변으로 분류하여 답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즈음은 조제분유가 잘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힘들게 모유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수유방법별로 보았을 때 인공영양을 한 어머니는 유의하게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인공영양을 실시하게 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모유수유에 대한 책임감을 감

Table 1. Comparison of mother's job and mother's education level

	House-wife	Full time	Part-time
		worker	worker
	N(%)	N(%)	N(%)
Middle school	25(71.4)	1( 2.9)	9(26.3)
High school	76(76.0)	11(11.0)	13(13.0)
College	17(48.6)	17(48.6)	1( 2.9)
Total	118(69.4)	29(17.1)	23(13.5)
	(n=170 $\chi^2=36.308$ , P<0.001)		

## 이정실 · 김을상

**Table 2. Mother's attitude on questionnaires by feeding method**

Questionnaire	feeding method	Agree	Disagree	Suspect	Chi-square
		N(%)	N(%)	N(%)	
1	Breast-feeding	4( 5.9)	61(89.7)	3( 4.4)	$\chi^2=14.673$
	Bootle-feeding	22(29.3)	48(64.0)	5( 6.7)	$p<0.01$
	Mixed-feeding	7(25.9)	18(66.7)	2( 7.4)	
2	Breast-feeding	67(98.5)	0( 0.0)	1( 1.5)	
	Bootle-feeding	65(86.6)	1( 1.3)	9(12.0)	$\chi^2=13.217$
	Mixed-feeding	24(88.9)	2( 7.4)	1( 3.7)	$p<0.05$
3	Breast-feeding	67(98.5)	0( 0.0)	1( 1.5)	
	Bootle-feeding	67(89.3)	0( 0.0)	8(10.7)	$\chi^2=5.723$
	Mixed-feeding	26(96.3)	0( 0.0)	1( 3.7)	$p<0.05$
4	Breast-feeding	5( 7.4)	54(79.4)	9(13.2)	
	Bootle-feeding	20(26.7)	44(58.7)	11(14.7)	$\chi^2=12.302$
	Mixed-feeding	3(11.1)	4(15.5)	6(23.1)	$p<0.05$

(n=170)

Qustionnaire 1 :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ut up with the difficulty of breast feeding when it is easy to purchase infant formula.

Qustionnaire 2 : Breast milk is the best food for infants under 4 months.

Qustionnaire 3 : Breast feeding will impove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imant.

Qustionnaire 4 : Breast feeding can be good for the baby but it is a sacrifice for the mother.

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장이 있는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개월 까지는 모유영양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거의 모두가 찬성으로 응답하였다. 모유영양을 한 어머니에서는 반대로 담한 경우가 없었으나 인공영양 및 혼합영양을 한 어머니에서 반대로 담한 사람이 3명 있었다. “모유영양이 모자간의 정서관계에 좋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반대라고 표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대개가 찬성으로 응답하였다. “모유영양이 좋을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회생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수유방법별로 인공영양을 한 어머니가 유의하게 많이 찬성을 하였다. 이는 김성택<sup>14)</sup>의 결과 및 Liebrich와 Morley<sup>15)</sup>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경우도 가정주부에 비하여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인공영양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은 모유수유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영양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서 나타난 속초시 영유아들에 대한 4개월 까지의 수유방법은 모유영양이 전체의 40.0%였으며, 인공영양이 44.1%, 혼합영양이 15.9% 이었다. 이는 1980년 이전의 연구<sup>7-10)</sup>와 비교하여볼때, 전라남도 승주군 농촌 지역<sup>7)</sup>에서 모유영양이 95.6%, 대전지역<sup>8)</sup>에서는 60.4%, 전국의 대도시 지역<sup>9)</sup>에서는 42.8% 및 전국의 도시, 읍, 평야, 산간 및 섬지역<sup>10)</sup>에서는 한명을 제외한 대상자 전원이 모유영양을 실시하였던 것보다 본 조사에서 모유영양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모유영양의 감소추세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3). 이결과는 1977년 전국 8개 대도시에서 조사한 결과<sup>9)</sup>와 천안의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sup>12)</sup>, 한국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sup>13)</sup> 및 부산시와 경남의 농촌을 대상으로한 조사<sup>14)</sup>와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인공영양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Table 4).

### 영유아의 이유 실태

**Table 3.** Comparison of infant's feeding method before weaning and mother's education level

	Breast feeding N(%)	Bottle feeding N(%)	Mixed feeding N(%)
Middle school	17(48.6)	12(34.3)	6(17.1)
High school	44(44.0)	40(40.0)	16(16.0)
College	7(20.0)	23(65.7)	5(14.3)
Total	68(40.0)	65(44.1)	27(15.9)

(n=170  $\chi^2=9.486$ , P<0.05)

**Table 4.** Comparison of infant's feeding method before weaning and mother's job

	Breast feeding N(%)	Bottle feeding N(%)	Mixed feeding N(%)
Full-time worker	1(3.5)	25(86.2)	3(10.3)
Part-time worker	6(26.1)	14(60.9)	3(13.0)
House-wife	61(51.7)	36(30.5)	21(17.8)
Total	68(40.0)	75(44.1)	27(15.9)

(n=170  $\chi^2=33.844$ , P<0.001)

인공영양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모유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직장관계, 엄마의 건강조건이 각각 32.7%, 24.5% 이었으며, 분유가 더 편리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5%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1979년도의 조사<sup>8)</sup> 및 1980년대의 조사<sup>12-13)</sup>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모유가 부족하더라도 모유수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분유가 더 편하다 할지라도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강조하는 교육 및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유영양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은 영유아의 할머니가 28.9%로 가장 많았고, 친척 및 친구가 11.1%, 의사가 7.0% 그리고 남편이 3.0%의 순이었다. 그러나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5%를 차지 하여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사회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사의 조언이 전체의 7.0% 밖에 되지 않으므로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을 통한 산전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모유의 수유기간은 인공영양아를 제외한 영유아 중에서 이미 단유한 83명의 대상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중 15.7%에 해당하는 13명이 5개월에 단유하였으며 그 시기를 전후로 숫자가 감소하여서 1개월에서 단유한 사람으로부터 16개월에 단유한 사람까지 있었다(Fig. 1).

이 결과는 농촌이나 도시에서 모두 6개월 이후에 단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 김성택<sup>14)</sup>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모유영양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모성의 산후회복의 촉진과 모성의 배란지연으로 가족계획에도 유리하며<sup>19-22)</sup>, 유방암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하는 보고<sup>23)</sup>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모유영양이 증가되어가고 있으나<sup>6)24)</sup> 25)<sup>26)</sup>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점차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sup>7)10)27)28)</sup>, 이러한 문제점은 수유부 자신들의 모유영양을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고취, 조제분유의 과장된 내용의 광고억제, 모유영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임신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국민 계몽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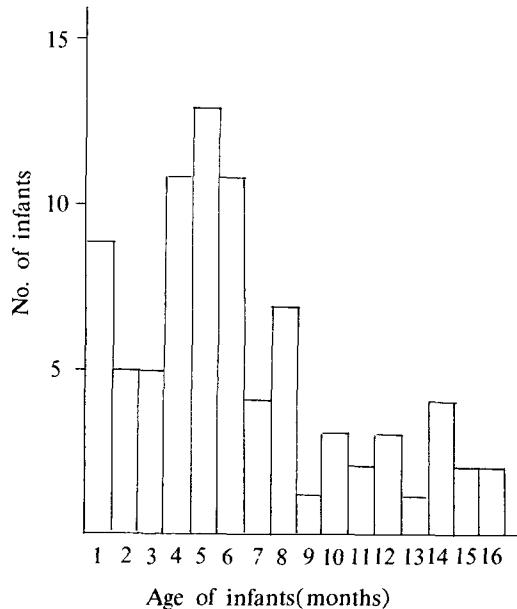


Fig. 1. Duration of breast-feeding.

이유의 시작시기는 평균 5.6개월로 Fig. 2와 같이 대상자 전체가 2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로 응답하였는데 이중 75.9%에 해당하는 129명이 6개월 이전에 이유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1979년도 정영진<sup>8)</sup>의 연구와는 유사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1968년 농촌지방의 이유실태조사<sup>7)</sup>와 1977년의 중도시의 유아의 이유실태에 관한연구<sup>15)</sup>에서 6개월 이후에 이유를 실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때 본 조사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유를 실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유시기가 시대가 지날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것은 매스컴 등을 통한 정보의 수용이 증가된 것이나 상품화된 이유식의 구입이 편리해진 것 등을 들수있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유의 차는 없지만 이유의 시작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들이 많을수록 영유 아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유시기도 빨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유의 완료시기는 연구대상자 중에서 이미 이유를 완료한 97명 중 56.7%에 해당하는 55명이 11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이유를 완료하였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그 시기를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체가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나타났다(Fig. 3). 이 결과는 정영진<sup>8)</sup>의 조사에서 13~18개월에 이유를 완료한 수가 대상자의 46.2%이었던 것과 전승규<sup>29)</sup>의 조사에서 18~24개월에 이유를 완료한 수가 전체의 24.5%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유의 전체적인 완료시기가 빨라졌다. 모유의 수유기간과 이유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는 가족의 수, 어머니의 학력 및 직업, 월수입 수준 및 영아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였으나 이유의 시작시기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빨라져서 특히 대졸자에서 유의차를 보였다(Table 5, 6).

이유식을 만드는 사람은 어머니가 전체의 90%, 할머니가 10% 이었다. 이유식에 관한 지식의 습득률은 60.6%가 요리책이나 육아서적이었으며, 그다음이 TV나 라디오(21.2%), 소아파나 분유회사에서 발행한 소책자(5.9%) 및 신문이나 잡지등(4.7%)의 순이었다. 이는 1987년에 실시한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sup>12)</sup>와 1978년에 실시한 김성택<sup>14)</sup>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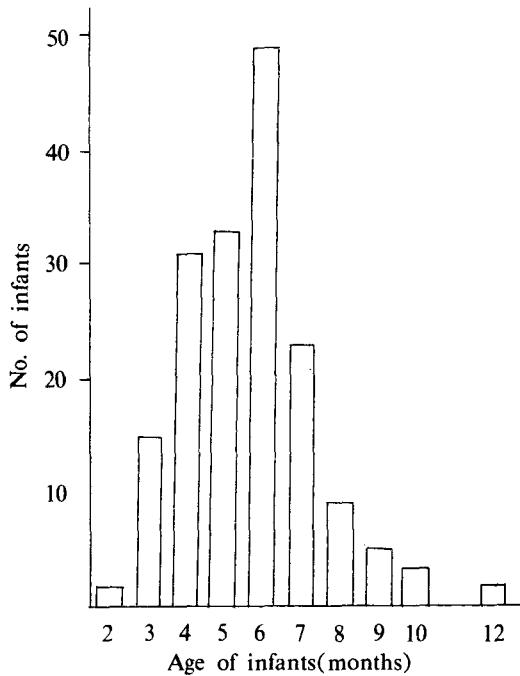


Fig. 2 The onset time of w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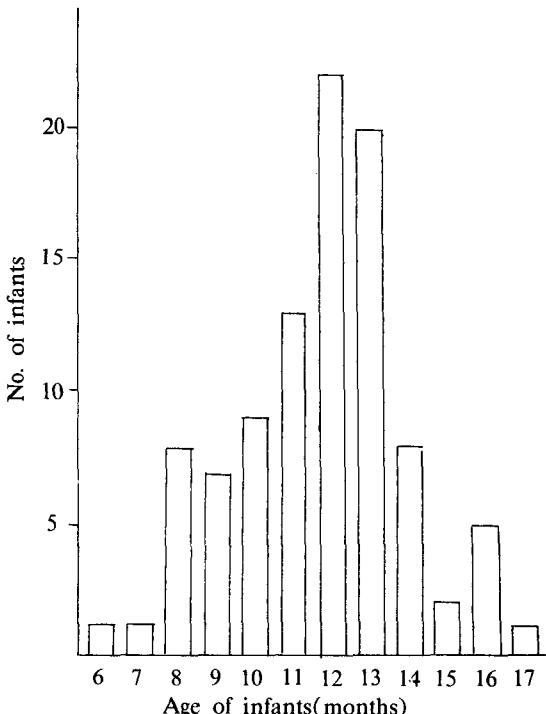


Fig. 3 Finishing time of weaning.

## 영유아의 이유실태

**Table 5.** Comparison of mother's education level with duration of breast feeding, onset time of weaning and finishing time of weaning

	mo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months		
Duration of breast-feeding	7.3±4.6 <sup>a</sup>	5.9±3.7	6.3±4.3
Onset time of weaning	5.6±0.2 <sup>a</sup>	5.9±3.7	5.0±1.3 <sup>b</sup>
Finishing time of weaning	12.0±0.2	11.7±2.0	11.6±2.9

<sup>a</sup> Mean± S.D.

<sup>a,b</sup> : Mean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Table 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onset time of weaning and finishing time of weaning with number of family, education level of mother, level of monthly income and birth order of infant

	Number of family	Education level of mother	Level of monthly income	Birth order of infant
Onset time of weaning	-0.002	-0.089	-0.039	-0.086
Finishin time of weaning	-0.115	0.089	0.050	-0.071

연구에서 도시지역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유식에 관한 정보나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등을 얻을 수 있는 요리책이나 유아서적의 발행인들은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리법의 정확성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먹인 이유식의 종류는 과일쥬스가 전체의 7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계란(12.4%) 및 생선살(9.0%)의 순이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결과를 나타낸 여러 연구들과 비교하여볼때, 1987년에 실시했던 연구<sup>12)</sup>나 1979년에 실시된 연구<sup>8)</sup> 및 1978년에 실시된 연구<sup>9)</sup>의 결과와는 같은 양상이었다. 그러나 처음 소개한 이유식이 밥, 죽, 과자의 순이었던 1968년 농촌지방의 이유실태조사<sup>7)</sup>와 한국농촌에서 68.7%가 밥을 이용하고 있었고 과즙을 이용한 예는 한명도 없었다고 한 1969년에 행해진 윤종준과 김인달<sup>10)</sup>의 보고와는 다른양상을 보였다. 이는 농촌과 도시라고 하는 지역적인 차이로도 볼수 있으나, 요즈음은 유통의 발달로 상품화된 과일 쥬스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유아들이 제일 잘먹는 이유식의 종류는 과일이 51.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죽(10.9%), 계란(10.2%), 및 기타(요구르트, 생선살, 된장국,

치이즈, 과자, 젤리, 케익, 두부등)의 순이었다. 영유아들의 잘 먹지 않는 이유식으로는 채소가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콩(12.4%), 두부(10.0%), 및 기타(6.2%)의 순이었으며 영유아들이 싫어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4.0%나 되었다. 영유아들이 싫어하는 채소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결핍을 막기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조리법의 개발이나 영유아용 식품의 개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품의 종류별로 이유식의 사용빈도는 Table 7와 같다. 쌀, 빵, 감자 및 국수류 등의 곡류는 대상자의 75.9%가 자주(주 5회 이상) 사용한다고

**Table 7.** The feeding frequency of infant foods per week

	Less than 2 times	3~4 times	More than 5 times
	%		
Cereals	7.6	16.5	75.9
Meat & fish	49.4	33.5	17.1
Egg	39.4	35.3	25.3
Bean & bean curd	44.1	41.2	14.7
Fruit & juice	7.1	28.8	64.1
Vegetables	51.2	32.4	16.5

## 이정실 · 김을상

**Table 8.** Comparison of feeding frequency of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 and mother's job per week

	Never use	1~2 times	3~4 times	More than 5 times
	N(%)	N(%)	N(%)	N(%)
House-wife	1(0.9)	64(54.2)	37(31.4)	16(13.6)
Part time worker	0(0.0)	12(52.2)	6(26.1)	5(21.7)
Full time worker	2(0.6)	17(58.6)	6(20.7)	6(20.7)
Total/3(0.6)	93(54.7)	49(28.8)	27(15.9)	
(n=170)				

응답하여서 당질 위주의 이유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육어류는 드물게(주 2회 이하) 사용한다가 49.4%이었다. 계란은 25.3%가 자주, 39.4%가 드물게(주 2회 이하), 35.3%는 가끔(주 3~4회) 사용한다고 하였다. 콩이나 두부제품은 드물게 이용한다가 44.1%, 가끔 사용하다가 41.2%이었다. 생과일이나 과일쥬스류는 64.1%가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채소류는 51.2%가 드물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자주 사용한다고 한 경우가 16.5%뿐이었다. 이결과로부터 이유식도 성인식과 마찬가지로 곡류로 편중되어 이로 인하여 비타민에서는 A, B<sub>1</sub> 및 B<sub>2</sub>와 무기질에서는 철분이 결핍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영유아빈혈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에 철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를 위한 요리방법의 개발이나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판 이유식의 사용빈도는 주 1~2회 사용한다고 답한경우가 전체의 54.7%이었으며, 주 5회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15.9%밖에 되지 않았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도 주 부중에서 1명이 있었다. 시판이유식의 사용빈도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생활수준과는 사용빈도가 무관하였으며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 유의 차는 없지만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Table 6).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판이유식의 종류로는 과일쥬스 등의 액체음료가 48.8%, 이유밀, 쎄레락 등의 분말성이 28.2%, 거버 유아식등의 호상형태가 11.2%로 대개가 액상 및 분말성이었다. 이는 이유식중에 탄수화물, 비타민 및 단백질의 보충에 중점을 두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유식을 주는 방법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영유아에게 이유식을 주는 이유는 영양보충의 의미 이외에도 반고형식이나 고형식에 적응하기 위한 것인데 분말상 이유식도 분유와 섞어서 액상으로 공급하는 점은 개선이 되어야하며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중에서도 이러한 주의점 명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요약

속초시에 거주하는 6개월에서 20개월 사이의 영유아 170명(남아 98명, 72명)을 대상으로 1991년 3월 25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영유아들의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로 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79.4%가 고졸 이상이며 주부가 69.4% 직장근무 17.1%, 부업 및 시간제 근무가 13.5%이었다. 영유아의 이유이전의 수유방법은 모유영양이 40.0%, 인공영양이 44.1% 및 혼합영양이 15.9%이었다. 모유의 수유기간은 최고 18개월까지로 나타났으며 인공영양아를 제외한 대상자중에서 평균 수유기간은 6.3개월이었다. 이유의 시작시기는 대상자 전체가 2개월에서부터 12개월로 평균 5.6개월이었으며, 이유의 완료시기는 전체가 6개월에서부터 12개월로 평균 11.4개월이었다. 제일 먼저 먹인 이유식은 과일쥬스류가 전체의 78.2%이었다. 식품의 종류별로 이유식의 사용빈도에서 대상자의 75.9%가 곡류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여서 당질위주의 이유식이 이루어 졌으며, 육어류와 채소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시판이유보충식의 사용여부는 주 3회이상 사용하

## 영유아의 이유실태

는 경우가 44.7% 이었으며 대개가 분말 및 액상 형태인 제품이었다.

### Literature cited

- 1) 이양자. 영양과 두뇌발달. *한국영양학회지* 10 : 65-71, 1977
- 2) 김재은. 영양과 행동의 발달. *한국영양학회지* 10 : 2-77, 1977
- 3) Purvis GA.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in infant feeding. *한국영양학회 춘계심포지움* 38-40, 1991
- 4) Williams ER, Caliendo MA. Nutrition-Principles, issues and applications. McGraw Hill, pp 431-436, 1984
- 5) 김천호. 신고 특수영양학. pp 170-180, 수학사, 1990
- 6) Fomon SJ.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 171-182, 1987
- 7) 이현금, 독고영창, 황우경. 농촌지방 이유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2) : 117-119, 1968
- 8) 정영진. 영유아의 이유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2 (11) : 23-30, 1979
- 9) 이현금, 최민영, 김철규, 한동관, 현우, 이동기. 한국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21 (10) : 661-672, 1978
- 10) 윤종준, 김인달. 한국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이유양상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 : 65-80, 1970
- 11) 송요숙.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수유 및 이유보충식 급식현황과 개선방법. *한국영양학회 춘계심포지움* 41-50, 1991
- 12) 방홍기, 김경희, 박재옥, 이상주.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30(3) : 266-274, 1987
- 13)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구, 신상만, 한동관, 문수지. 한국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28 (10) : 8-12, 1985
- 14) 김성택.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소아과* 22(5) : 1-16, 1979
- 15) 안숙자. 한국 중도시 유아의 이유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 : 45-55, 1977
- 16) Joyner SP. SAS/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s. 6th ed,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1986
- 17) 이광전, 조재성, 생물통계학. 선진문화사, 1988
- 18) Liebrick UA, Morley D.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Env Chld Hlth* April 31-33, 1976
- 19) 박형숙. 산후 월경재현과 수유기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1979
- 20) Kippley SK, Kippley JF. The relation between breast-feeding and amenorrhea. *Env Chld Hlth* Oct. 239-245, 1977
- 21) Schoenborn CA. Breastfeeding as a contraceptive method among a low income group of Tehrani women. *Env Chld Hlth* Dec. 274-276, 1976
- 22) Ginneken JKV. Prolonged breastfeeding as a birth spacing method. *Env Chld Hlth* April 59-66, 1975
- 23) Cameron M, Hofvander Y. Manual on fee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2nd ed, New York, United Nations p18, 1975
- 24)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Breast-feeding. *Pediatrics* 62(4) : 591-601, 1978
- 25) Samuels SE, Marggen S, Schoen EJ.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a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opulation. *Am J Clin Nutr* 44 : 504-510, 1985
- 26) WHO. World Health Statistics. 1982
- 27) 김충희. 1세이하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8) 황계순. 우리나라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9) 전승규. 어린이의 영양개선책; 지도면에서. *한국영양학회지* 12(2) : 29-36, 1979